

전인목회와 건강도시 : 하나님 나라의 관점

조 무 성*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인목회가 무엇이고 신학적 밑받침은 무엇이며 도시안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산물인 살롬커뮤니티로서 성경적 건강도시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교인수의 지속적 감소, 한기 총 사태의 부패, 부정적 이미지의 양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한국교회 특히 보수진영의 교회가 바울처럼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균형 있는 목회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목회스타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기서 제시하는 전인목회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관계적 존재로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도록 구성원을 돌보며 섬기는 것이다. 전인목회의 특징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 통전적 구원, 전인예배, 전인치유, 전인교육, 전인사랑을 포함한다. 전인목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산물로 살롬 커뮤니티를 추구한다. 살롬은 성경적 전인건강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전제로 하는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을 포함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전인목회를 가능케 하는 신학적인 뒷받침으로 공적신학과 살롬 커뮤니티 신학이다. 건강도시를 공적신학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경적 건강도시를 살롬커뮤니티 신학을 통해서 그 본질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담아 낼 수 있다.

건강도시를 시정부와 시민의 전인건강을 위해 힘쓰는 도시이고 성경적 건강도시를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건강을 위해 힘쓰는 도시이다. 우리나라는 WHO 건강도시연맹 9 개국 122 회원 도시 중 59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살롬커뮤니티 형식의 전략으로 일반적 의미의 건강도시와 차이점을 확인,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의 공통분모인 삶의 질 향상과 전인건강에 초점을 두어 시민들을 섬김, 목회자들 간에 전인목회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도시 내의 교회 네트워크를 형성,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 G 프로젝트(Good Samaritan Project)와 고통 주는 사람을 통제하는 J 프로젝트(Jericho Project) 실시, 전인목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살롬 일꾼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들 수 있다.

주제어: 전인목회, 건강도시, 살롬커뮤니티, 성경적 건강도시, 하나님 나라

*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행정학 교수

2011년 8월 15일 접수, 9월 19일 수정, 9월 21일 게재확정.

I. 문제제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메시지와 천국비유 및 바울의 로마의 2년간 가르침 속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인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제자를 삼아라”는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연장선상에 있다(마태복음 4: 18; 28: 19-20).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외친다는 점이다(마태복음 28: 18).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마태복음 13:1-51; 최낙재, 2008, 2009). 예수님은 제자에게 천국 비유를 깨달았는가 하고 묻는다. 제자들은 깨달았다고 대답한다(마태복음 13: 51).

바울은 로마에서 두해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전파하며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어 그것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쳤다(사도행전 28:23, 30,31). 예수님과 사도가 가르친 선교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나라의 수립에 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심상법, 2005). 이러한 총체적 복음 사역은 예수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역이다.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근거하여 복음전도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 보다 균형적 입장이다(존 스토틀, 1982, 2006)¹⁾. 선교에 대한 자유주의 입장은 사회적 책임에 그리고 보수주의 입장은 복음전도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함께 강조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구성원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함께 강조하기 때문이다(마가복음 12: 30-31).

1) 선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보편적 생각이다([http://en.wikipedia.org/wiki/Mission_\(Christianity\)](http://en.wikipedia.org/wiki/Mission_(Christianity))). This has frequently involved not only evangelization(in order to expand Christianity through the conversion of new members), but also humanitarian work, especially among the poor and disadvantaged

그러나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시작과 끝을 가지고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대부분의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과 장례식 때 설교를 통해 자주 듣는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것에만 일반성도들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루어가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비유를 깨달았는지 물어보면서 확인하며 가르치지 않는다(마태복음 13: 51).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핵심공동체로서 제구실을 못하기에 국가라는 집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튼튼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는커녕 그 반대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세계선교를 이끌고 있는 미국 교회와 한국의 교회의 교인의 비율이 계속 감소되는 이유는 복음 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핵심 요인이다. 단적인 예로 1995년과 2005년을 비교해서 불교와 천주교는 교인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한국교회는 기독교인 비율이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www.kosis.kr)²⁾. 한국 교회의 교인 수는 1995년에는 8,760,336명(19.7%)이었는데 2005년에는 8,616,438명(18.3%)으로 14만 4천명이 줄었다. 이러한 추세가 멈추고 있는지 반전되고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지 2015년 새로운 통계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낙관할 수 없고 현재까지는 오히려 비관적이다. 그 이유는 그 후 5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면 기윤실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18.4%로 하위에 머물렀고 2009년 나중 조사에서 여전히 국민의 신뢰는 19.1%의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기윤실·교회 신뢰회복네트워크, 2008: 31; 2009: 14)³⁾. 이것은 지난번 아프간 사태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강한 표출을 반영하며 그 이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러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에 부패선거에 연루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태는 한국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더욱 가로 막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라면 국가라는 집을 구성하는 대들보인 정치와 경제인 기둥과 주춧돌인 교육과 안방인 가정과 사랑방인 사회와 창문인 언론과 지붕인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여 문제점들이 훨

2) 불교: 10,726,463명(22.8%) 1995년 보다 40만 5천명 증가, 기독교: 8,616,438명(18.3%) 1995년보다 14만 4천 명이 감소, 천주교: 5,146,147명(10.9%) 1995년보다 219만 5천명이 증가. 불교는 인구 중 비율은 23%에서 22.8% 줄었지만 교인 수는 증가되었고 가톨릭은 비율과 교인수가 다 증가했지만 개신교는 둘 다 감소했다.

3) 종교기관의 신뢰도 순위를 보면 가톨릭교회(35.2%), 불교(31.1%), 개신교회(18.0%)의 순위다.

신 많이 해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권력획득을 위한 갈등의 정치,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악하고 힘센 사람을 키우는 경쟁적 교육제도,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정의 붕괴, 암 발생 증가와 자살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 균형 감각을 상실한 언론, 향락적 문화의 문제들이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교회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막는 장애는 교회 내적 요인이나 교회 외적 요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다(최낙재, 2008, 2009, 2010, 2011; 김홍전, 2004, 2005, 2008; 양용의, 2007; 란다콕, 2006, 박철수, 2009; 고용수, 2009; 홍창표, 2004; 도널드 클레이빌, 2010; Voss, 1975; Dodd, 1935). 그러나 목회현장에서는 바울처럼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소수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 접목하여 살롬커뮤니티를 이루려는 노력과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곳에서는 공적신학과 살롬커뮤니티 신학 그리고 국내외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건강도시의 접근을 연결하여 하나님 나라의 산물로서 건강도시 특히 성경적 건강도시의 연구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Linthicum, 2006; Cole, 2009; Forrester, 2004; Stackhouse, 1997; Hainsworth & Paeth(eds). 2010; 이형기, 2008; 이승구, 2008; 김경재, 2006; Hancock, 1993, 1997; Coburn, 2009; Leew, 2009).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주의진영의 교회를 제외하고 보수진영의 교회에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가르쳐 왔다. 하지만 그동안 마치 독수리의 한 쪽 날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목회현장에서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답 중 상당 부분이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의 초점과 긴밀히 관련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충실한 목회스타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러한 목회가 교회를 통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본 논문의 출발점이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인목회가 무엇이고 왜 중요하며 도시

안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산물인 살롬커뮤니티로서 성경적 건강도시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 체계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인목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산물로서 살롬커뮤니티의 신학적 배경을 탐구하며 이러한 살롬커뮤니티를 현재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가 가입하여 활발하게 추구하는 있는 건강도시와 비교하여 건강도시와 공통분모를 찾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산물로서 성경적 건강도시인 살롬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전략을 찾아보려고 한다.

II. 전인목회와 전인건강

1. 전인과 목회의 개념

(1) 전인(whole person)의 개념

전인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 영혼과 몸이 통일된 인격체를 의미한다. 전인은 공간속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와 자연환경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영혼과 몸이 통일된 인격체이다. 전인교육은 인격체만의 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를 배제한 전인교육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인교육에서는 전인을 지·정·의나 덕·체·지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전인을 다루고 있다. 전인교육은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덕성과 지성과 체력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며 인격을 각성하는 것이다(김정환, 1998: 190).

이처럼 전인적인 인간관은 인간을 어느 한 측면만으로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인간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몸을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할 뿐 아니라 인간을 생리적 생물학적 존재만으로 또는 정신적 존재만으로, 아니면 환경적 존재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생리적, 정신적, 환경적 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의 관점을 의미한다.

성경적 관점의 전인은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빠트릴 수 없

다. 전인은 관계적 존재로서 영혼과 육체의 통일된 인격체이다⁴⁾. 즉 성경적 인간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원래의 이미지(original image)를 가졌지만 불순종으로 그것이 왜곡된 이미지(perverted image)를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회복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 재림의 영광을 입을 완성된 이미지(perfected image)를 가지는 인간이다(Hookema, 1988).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의 인간의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자신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비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관점이다.

(2) 목회의 개념

목회라는 말에 해당하는 언어 표현은 牧會, pastoral, Seelsorge가 있다. 한자의 표현은 양을 치고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pastoral은 목사의 전문적 역할, Seelsorge는 단순히 영혼이나 아니라 영육의 전인을 돌보는 것을 나타낸다. pastoral care은 목회돌봄으로 주로 고통 받는 이웃을 향한 목회를 뜻한다. ministry는 교역이나 사역의 의미로 일반교인들과 함께 은사대로 참여하여 봉사에 기초한 목회와 선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목사에 대한 표현도 pastor, minister, reverend, clergy, chaplain과 같이 다양하다. pastor는 라틴어 pastor의 목자(shepherd)를 의미하고 먹이다 뜻의 pascere에서 나왔고 minister는 라틴어 ministrare(to serve)에서 나와서 봉사자를 의미하며 reverend는 라틴어 reverare(to respect)에서 나와서 존경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clergy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clerk(서기)의 칭호를 목사에게 붙인 것이고 요즘은 거의 쓰지 않으며 chaplain은 군목과 교목 원목 등에 쓰인다(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2009: 12-15; <http://en.wikipedia>). 또한 목회를 다루는 목회학(poinemics)과 목회신학(pastoral theology)은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며 차이점을 찾는다고 하면 전자에 비해 후자는 문제해결의 방법과 신학적 의미를 찾는데 더욱

4)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 통일체라고 하는 경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 재림시 부활된 몸을 입을 때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죽음과 부활 사이 즉 중간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지만 최홍석 교수는 중간상태에는 유기적 영육 통일체론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므로 “조건적 영육통일체”로서의 인간을 제시하고 있다(최홍석, 1991: 58(2): 98-99).

주력한다.

목회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2009: 16-28). 목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일로서 첫째로 목사가 하는 모든 일, 둘째로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는 일, 셋째로 개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 넷째로 목사를 포함한 모든 교인들이 각각 은사대로 참여하는 사역의 의미로 쓰인다. 전통적으로 앞의 세 의미에 초점을 두어 왔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위의 목회의 각 정의는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수행되고 여기에는 목회자가 관여하는 다양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목회자가 교회에서 공예배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목회자의 주된 임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목회자는 고통을 당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기 때문이다. 넷째, 목회자는 교회 외에도 자신의 가정이나 참여하는 사회의 영역 등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역을 한다. 비목회자 곧 평신도는 안수를 받은 목회자처럼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거나 교회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목회자인 평신도는 주일학교나 구역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를 인도한다. 교회의 일에 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관여한다. 고통 받는 교우와 구역의 사람들을 방문하고 위로한다. 평신도는 교회 밖의 자신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역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 교회의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는 교인도 있다. 물론 일반평신도는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가정과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

목회를 교육의 영역, 상담의 영역, 음악의 영역, 치유의 영역, 생명의 영역 중 어떤 사역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교육목회, 상담목회, 음악목회, 치유목회, 생명목회로 나누기도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말씀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비롯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제자를 키우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목회는 무엇에 초점을 두는 목회인가? 이곳에서는 전인에 초점을 둔 목회 곧 전인목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⁵⁾.

5) 전인목회라는 용어가 학술잡지의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았는데 1987년 이기춘 교수가 심리학의 관점에서 “에릭슨의 생애주기 이론과 전인목회(I)”. 『신학과 세계』에서 발견되었고

2. 전인목회의 개념과 특성

전인목회(holistic ministry)는 관계적 존재로서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인 전인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다⁶⁾. 관계적 존재로서 온전한 인격체를 세워 가는데 그 초점이 있다. 전인목회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관계적 존재로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도록 구성원을 돌보며 섬기는 것이다. 전인목회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받아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춘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가는 것이다(에베소서 2:8-10; 디모데후서 3: 16-17). 그 열매로부터 그 나무를 알듯이 온전한 인격체와 선한 일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또한 선한 일은 관계적 존재로서 성립될 수 있고 타인이나 환경과의 고립 속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 관계적 존재로서 온전한 인격체를 세워가는 전인목회는 성경적으로 전인 건강한 인격체가 되도록 구성원을 돌보고 섬기는 목회로 달리 표현된다.

전인목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전인목회연구원에서 전인치유, 내적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 전인목회라는 용어를 쓴 것을 발견했다. 또한 김영환 교수는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과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주최로 2002년 21세기 목회와 전인건강을 주제로 열린 제 10회 전국목회자 세미나에서 “한국교회의 목회가 전인적 목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인적 목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51652>). 앞의 두 경우의 전인목회의 개념은 필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전인목회와 구별된다. 전인목회에 대해 처음 생각했던 것은 1995년 미국에 안식년을 보냈을 때다. 암 투병 중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에서는 암 정책을 연구하고 에반스톤의 케렛복음주의 신학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의미, 건강과 질병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신학대의 기숙사에 생활했고 거기서 오성주 신학생(현 감신대 교수)을 비롯한 몇몇 신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비목회자의 입장에서 전인예배, 전인치유, 전인교육, 전인사랑, 전인선교를 제시한 적이 있다.

- 6) 전인목회의 영어표현을 앞에서 목회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반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며 좁은 의미의 목회와 선교를 포함하는 뜻에서 holistic ministry로 표현했다. 이런 차원에서 전인목회자는 holistic minister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에 초점을 둔 말씀과 행정, 구제, 교육, 사회봉사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며 총체적 삶 속에 성경의 원리를 제시하는 교회의 핵심봉사자의 의미가 강하다. 전인목회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른 팀원들과 함께 연속선 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볼 수 있다.

(1)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목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별개로 다루지 않고 함께 다룬다.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나 동전의 양면처럼 모두 함께 강조하는데 목회의 초점을 둔다. 예수님만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빠진 목회는 현실변혁의 비전의 부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구속을 부인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자기 의에 도취하게 된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함께 할 때 잘 난처 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의 열정과 에너지가 지속될 수 있다. 전인목회는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데 초점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바른 관계를 가지셨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성장과정을 거친 온전한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셨고 예수님의 신성이 육체가운데 거하신 분이셨다(누가복음 2:52; 골로새서 2:9). 전인목회는 예수의 구속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동전의 양면이고 쌍두마차며 마차의 두 바퀴이며 바늘과 실이고 독수리의 양 날개라는 철저한 인식의 바탕위에 존재한다.

(2) 통전적 구원에 초점을 두는 목회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의 통일된 인격체의 구원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자신 뿐만 아니라 동물을 비롯한 피조의 세계도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이며 통전적이다(로마서 8: 20-22).

(3) 하나님을 향한 전인예배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에 전인목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그리고 온 인격체를 다해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을 둔다. 우리의 예배는 영적, 정신적, 신체적, 인격적 통일체로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온 심정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지성을 다하며 젓 먹을 때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마태복음 22:37,38; 마가복음 12:30-31; 요한복음 4:24).

(4) 고통 받는 인간을 향한 전인치유

인간이 갖는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의 치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서로 맞물려 있다. 우리의 마음, 몸, 인간관계, 환경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이롭지만 근심은 면역기능을 떨어뜨린다(잠언 17:22). 전인목회는 인간의 총체적 고통의 치유에 관심을 가진다. 온전한 인격체는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건강한 인격체 곧 성경적으로 전인 건강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5) 온전한 인간을 키우기 위한 전인교육

인간의 지정의를 골고루 발전시키며 덕성과 지성과 체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둔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워 마음에 절립을 받고 고쳐나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올바른 판단력과 튼튼한 체력을 온전히 조화롭게 키우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기울인다(누가복음 2: 52, 디모데후서 3: 16-17).

(6) 이웃을 향한 전인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섬기며 말이 아니고 행동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며 섬긴다(마태복음 12:30-31; 요한일서 3:18; 요한복음 13:1).

(7) 평생을 바치는 전인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며 평생 한길로 가는데 초점을 둔다. 예수님에게 눈동자 고정되어 한 인격체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의 전인적 고통을 생각하고 전인교육을 힘껏 도우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초점을 둔다.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다(사도행전 20: 24, 디모데후서 4: 7-8).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인목회의 뿌리이다. 전인예배는 그 뿌리와 연결된 밑둥치이다. 전인치유, 전인교육은 밑둥치에서 뻗어 나온 큰 가지며 전인사랑은 뿌리와 줄기에서 피어나는 전인목회의 꽃이며 전인선교는 사랑의 꽃으로 맺는 전인목회의 열매이다.

3. 전인목회와 전인건강

전인목회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 전인구원, 전인치유, 전인교육, 전인사랑, 전인선교에 초점을 둔다. 하나님 나라의 산물은 샬롬이며 이러한 샬롬은 전인구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전인치유의 목표가 되고, 전인교육의 가치가 되며, 전인사랑의 산물이고 전인선교의 원동력이다.

샬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전인건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샬롬을 평화(peace)로 번역하는데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와 같이 소극적 개념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샬롬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Linthicum, 2006: 5).

(1) 전인건강의 개념

건강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양하다. 질병의 반대명제(antithesis), 균형상태(balanced state), 성장(growth), 기능성(functionality), 적합성이 좋음(goodness of fit), 온전성(wholeness), 안녕(wellbeing), 초월성(transcendence), 강화(empowerment), 자원(resource)을 뜻한다(Sheinfeld-Gorin & Arnold, 2006: 3-17). 건강도시 내의 건강개념은 안녕, 온전성, 균형된 상태, 질병의 반대 명제 등의 여러 의미를 포함하여 어느 하나의 의미로 국한하기가 어렵다.

WHO는 건강개념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wellbeing)로 정의한다. 전인건강은 인격체의 건강과 인격체를 둘러싼 환경의 건강도 포함하므로 앞서 지정한 WHO의 건강개념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즉 WHO가 말하는 신체적·정신적 안녕상태는 인격체의 건강을 의미하며 사회적 안녕상태(wellbeing)는 인격체를 둘러싼 환경건강의 부분을 말한다⁷⁾.

7) 최근에는 영적인 차원의 건강개념을 WHO 현장에 넣으려고 상정했다가 소위원회에는 통과되었으

이처럼 WHO는 포괄적인 건강개념을 갖고 있다(Phillips & Verhasselt, 1994: 3).

건강개념은 다차원의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그리고 소극적 차원에서 적극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발전하고 있다. 즉 건강의 범위가 단순히 몸이나 정신만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건강과 물리적 환경의 건강도 포함되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영적 건강도 포함 한다. 건강이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소극적 차원 뿐 아니라 적극적 차원의 생활의 향상된 질이나 생활의 활력을 포함한다.

인간의 해석의 관점에 따라 건강개념의 범위가 달라진다. 인간을 육체적 존재, 영적 존재, 정신적 존재, 사회적 존재, 환경적 존재 중 어느 하나에만 국한시킨다면 건강개념은 총체적인 성격이 결여된다. 보통 건강하면 육체적 건강을 연상하고 몸이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인간을 육체적 존재나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WHO가 건강개념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wellbeing)로 정의하는 것은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 안녕상태는 영어로 직역하면 잘(well) 있는 것(being)이다. 우리말에 있어서 편지 서두에 안녕하십니까? 잘 있습니까?를 보면 이러한 개념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런 관점에서 WHO의 건강개념은 신체, 정신, 사회가 잘 있는 것이다. 인간 존재로서 마음과 몸 그리고 인간관계, 환경이 잘 있는 것이 전인건강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전인(whole person)은 마음과 몸의 통일체 곧 인격체를 의미한다. 전인건강(holistic health)은 이러한 인격체의 건강(whole person health)을 의미한다(조무성, 1997: 52-55). 인격체의 건강은 그를 둘러싼 환경 곧 사회적 환경과 자연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그런 관계를 갖지 않는 인격체의 건강을 생각할 수 없다. 자연환경은 보통 환경이라는 말로 통하기 때문에 전인건강은 몸 건강, 마음 건강, 사회 건강과 환경건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인치유는 인격체의 병 즉 마음과 몸의 병 나아가서 사회의 병과 환경의 병으로부터 전인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3) 성경적 전인건강으로서 살롬의 개념

린시쿰(Linthicum, 2005: 4-6)은 하나님 나라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나 총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

표현한 말이 샬롬(shalom)이고 하나님 백성의 기술이 샬롬 공동체(shalom community)이라고 주장한다(조무성, 2008). 히브리어 “shalom”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397번 신약 성경에 그리스어 “eirene”는 89번 나온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peace)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샬롬은 안녕(weal), 복지(welfare), 완전함(completeness), 화평케 함(to cause to be at peace), 화해(to make peace), 화목제물(peace offering), 휴식(at rest), 편함(at ease), 안보(secure), 안전(safe), 유종의 미(to finish well), 번영(to prosper), 온전함(to be whole), 완벽함(to be perfect), 승리(to be victorious)를 포함하는 개념이다(Lithium, 2006: 5).

월터스토프(2007: 14)는 샬롬을 인간이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라고 정의한다(조무성 2008).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즉 첫째, 샬롬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 분을 기쁘게 섬기는 상태이다. 둘째, 샬롬은 다른 인간들과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인간 공동체가 기뻐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샬롬은 자연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물리적 환경을 기뻐하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한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것이 되었기에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한 다른 것의 관계회복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이룩되지 않는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전제가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회복, 인간자신 내부의 모순적인 관계의 회복, 자연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로 이루지는 것이기에 성경적인 건강, 보다 분명히 말하면 성경적 전인건강인 것이다. 성경적 전인건강은 구속을 전제로 한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건강은 안녕상태 곧 웰빙(wellbeing)으로서 곧 직역하면 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샬롬은 영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샬롬은 성경적 전인건강이며 총체적 안녕상태이고 총체적 웰빙이다.

이 땅에서 성경적 전인건강의 수준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 따라 다르며 완벽한 전인건강수준은 존재하지 않고 일종의 연속성에서 존재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한 성경적 전인건강 곧 샬롬을 누린다(요한계시록 21: 3-4).

관계적 존재로서 인격체를 세워가는 전인목회는 성경적으로 전인건강한 인격체가 되도록 돌보며 섬기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한 전인목회의 특질을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성경적 전인건강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와 전인구원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인예배의 산물이고 전인치유의 목표가 되고 전인교육의 최고의 가치가 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전인사랑의 산물이고 전인선교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살림인 성경적 전인건강은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도시, 국가, 지구촌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교회가 자리잡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성경적 전인건강인 살림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III. 하나님 나라와 건강도시의 신학적 논리 연결

1. 공적 신학과 건강도시

공적 신학(Public theology)은 최근에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진영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이승구, 2008, 2010; , 김경재 2008; 이형기, 2008)⁸⁾. 신학자에 따라서는 공적 신학을 공공신학으로 부르기도 한다⁹⁾.

신학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공적(Public)이라는 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공적 신학의

8) 이승구(2010:23-53)는 그의 책 『광장의 신학』에서 공적 신학을 종합정리하고 있다. 김경재(2006)는 “공공의 신학에 관한 개신교의 두 흐름”에서 보수적 기독교의 사유의 신앙과 진보적 기독교의 참여 신앙을 다루고 있다. 이형기(2008)는 “공적 신학의 지평: 하나님 나라”에서 두 진영을 아울러서 학자들 소개하며 이승구(2008)는 “공적 신학에 대한 개혁파적 접근”에서 개혁파에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한다. 세계 교회협의회(WCC)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세계복음주의 연맹(WEA)에서는 특히 영국 복음주의 협회의 홈페이지(<http://www.eauk.org/>)에 공적 신학의 메뉴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6일 기윤실 20주년 기념 공공신학 전문가 집담회를 가졌다. 2008년 10월 15일 장신대에서 열린 소망신학 포럼과 10월 24일 동신교회에서 열린 미래 목회 포럼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김상복(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은 1846년 이후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WEA (<http://www.wordevangelicals.org/>)의 회장으로 2009년 취임했는데 이러한 여건과 기회가 WEA와 한국의 복음주의협회 및 한국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적 신학을 통해 세상과 도시를 변혁하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9) 이승구(2008)는 public square를 공적 영역으로 번역해 왔으므로 여기에 좇아 공적 신학으로 번역하고 있고 새 세대 교회윤리 연구소(2008),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와 문시영(2007),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윤실의 집담회와 소망신학 포럼에서는 공공신학의 용어를 사용하고 목회포럼에서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캐디(Cady)와 스택하우스(Stackhouse), 포리스트어(Forrester), 맥슨(Dackson)은 공적 신학의 특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지적 한다(Philip Ziegler, 2002; Forrester; Dackson 2006).

〈표1〉 공적 신학의 특징

캐디(Cady)	스택하우스(Stackhouse)
합리적인 대화와 일치하는 방법의 특징	특별한 이성의 양식으로 접근 비신학적 대화
신학적인 집단을 넘어 일반국민과 소통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실천가의 기능 중시
정치적 실재를 보증하는 일반인의 삶의 발전과 변화에 초점을 둔 실천적 의제 채택	보편적 공통적 인간존재의 근본문제 방향제시 신적 경륜의 자원의 보호
포리스트어(Forrester)	맥슨(Dackson)
복음전도를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음	현재 일어나는 도전에 반응하는 상황성
회개와 회심의 희망을 전하는 신학이 아님	비신학적 정보원이 동원되는 학제적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는 신학	실천지향적이어야 함
좋은 사회건설, 악의 제어 등의 신학적 통찰	다원화된 종교적 상황에서 핵심의 고수하더라도 전통적인 것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함.

공적신학은 현실 속에서 자유주의신학과 복음주의신학의 공통분모를 찾고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자유주의 입장은 복음의 본질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역사적 상황이 복음의 출발점이 될 수 없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주의는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주의권의 현실 교회의 모습이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문화변혁과는 거리가 멀고 복음주의는 사회적 책임을 통합시키는 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리차드 니이버: 2007: 311-318; Sider et al., 2005: 111).

공적신학에서는 자유주이나 복음주의나 함께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공통분모가 크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 다루는 문제는 비슷한 범위에 속한다. 예컨대 세계화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환경, 공적 신학의 체계화 등

의 문제는 공통관심사가 될 수 있다(이형기, 2008; 이승구, 2008).

이처럼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현실문제에 대한 공통분모를 갖더라도 각 신학이 갖는 전제가 다르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다. 자유주의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연속선상에서 성경관, 구원관, 종말론 등에 여러 가지 다른 전제의 입장이 존재한다¹⁰⁾. 양진영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고 거룩한 생활과 속된 생활을 분리하며 구원과 성화를 분리하여 연결하지 못하는데서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공적 신학은 복음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인간의 중요하고 보편적인 관심사를 다룬다. 건강도시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전인건강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신학의 대상으로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 앞서 지적한 대로 포리스터(Forrester, 2004)가 공적 신학이 복음전도와 성찬을 행하는 직접적인 복음주의적 신학(evangelical theology)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고유한 기능 이전에 도시의 복지(welfare)를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한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이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공적 신학에서도 그 전제가 복음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으면 뿌리 없는 나무가 생명력을 받아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살롬공동체의 입장이다. 이러한 살롬공동체의 입장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롬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와 살롬 커뮤니티 형성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10) 이승구(2008)는 개혁과 공적신학을 전개하는데 있어 기독교 증거, 교회안팎의 논의, 다른 학문 활용, 신학적인 측면에서 유의할 점을 들면서 특히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 보편구원론의 함의를 가지지 않으며, 만유재신론적인 방향의 전개는 안 되며, 인간능력에 의한 변화의 시사를 지양하며, 하나님을 증언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2. 하나님 나라와 샬롬 공동체(shalom community)의 신학의 관점

(1)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샬롬 공동체의 전제다. 하나님 나라의 이해 없이 샬롬공동체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곧 하나님 백성이다. 현재에도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되지 않았으며 미래의 완성될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미래를 무시하는 현재의 지상천국도 아니고 현재와 상관없는 죽음후의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영원한 미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양용의, 2007:126).

하나님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확장되어 간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그리스도시며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따라서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요 주가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성령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처럼 하나님나라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와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의 택한 전체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워지고 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신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기독인들과 교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2) 샬롬커뮤니티의 신학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적절한 산물이며 샬롬커뮤니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잘 나타내 준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전인건강과 성경적 건강도시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물로서 가장 두드러져 있다. 성경적 전인건강인 샬롬과 성경적 건강도시인 샬롬커뮤니티의 이해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누가 샬롬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샬롬이 형성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 예표된 평

강의 왕인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처음에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살롬을 주셨으며 마지막 메시지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하나님 나라 주권자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살롬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해 준다(이사야 9:6-7; 마태복음 4: 17; 요한복음 20:19, 21, 26; 마태복음 28:18). 살롬과 살롬커뮤니티의 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살롬은 개인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 도시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함께 파급된다.

린시쿰(Linthicum, 2006)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도로서 살롬커뮤니티(shalom community)를 일관되게 주장한다(조무성, 2008). 그는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 계시록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의도의 비전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한다¹¹⁾.

린시쿰(Linthicum, 2006: 15-21)은 살롬이 실현되는 세 가지 지표로 살롬의 사회적 영성 지표(social/spiritual indicators), 살롬의 정치지표(political indicators), 경제적 지표(economic indicators)로 나눈다. 그러나 실제 세계를 다룰 때 정치체제, 경제체제, 종교체제(religious system)로 분류한다(pp.25-28). 그러므로 용어의 통일과 관련하여 다소 혼란스럽지만 살롬의 사회적 영성 지표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의 역동적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종교체제를 선호하여 살롬의 세 지표를 정리했다. 이곳에서는 살롬이 실현되는 세 가지 주요한 지표로 종교체제,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사용한다(Linthicum, 2006; 조무성 2008). 이러한 각각의 체제에 살롬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함축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어느 사회이든지 종교, 정치, 경제 체제에 어떤 지표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러한 지표는 현실의 모습과 괴리를 나타낸다. 린시쿰의 이러한 주장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살롬을 가져오는 종교지표로 올바른 종교는 신앙, 가치, 종교적 실체가 사람들과 사회를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도록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에 대한 탐심은 종교적 부패로 이어진다. 둘째, 살롬을 가져오는 정치지표로 정치체제는 정의롭고 자애롭게 행동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의 중재적 제도로서

11) 창세기 2:7-8의 에덴, 출애굽기 19:3-6의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나라, 신명기 4:12-20의 하나님의 친백성, 시편 48: 1, 12-14a의 하나님의 도시 시온, 스가랴 8:3의 거룩한 산, 예수의 누가복음 17: 20-21의 하나님 나라, 바울의 고린도전서 15:23의 그리스도의 나라, 요한의 계시록 21:1-2의 주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교회는 사회의 정치체제가 공적 생활을 바르게 운영하고 특히 힘없는 사람을 긍휼이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과제에 압력을 넣으려고 해야 한다. 현실의 정치부패는 백성을 억압하는 일방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 나타난다. 셋째, 경제지표로 경제체제는 빈곤을 제거하는 것이다. 경제부패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착취하는 경제적 탐욕에 굴복할 때에 나타난다. 착취의 경제와 억압의 정치가 종교시스템과 담합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이유는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은 백성 쪽에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백성들이 그들의 반응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종교가 행사하는 신뢰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의 지도자를 모방할 때 백성은 서로간의 착취자, 힘없는 자의 억압자, 사회의 통제자로 전락한다.

린시쿰(Linthicum, 2006)은 바빌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의 70년 후의 귀환의 약속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고 주장한다(조무성, 2008). 예레미야의 강조점은 바빌론의 포로로 살다가 죽을지라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예레미야 29: 7). 우리가 도시 안에 있는 이유는 삶을 위한 단순한 환경(environment) 때문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call from God)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백성이 포로로 잡혀 간 사실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환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군대가 패하고 도시가 불타고 쇠사슬에 묶여 사막을 건너 바빌론에 온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circumstance)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바빌론의 악한 도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는 것이다. 린시쿰은 이러한 통찰을 현재의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 교회에 부름 받은 우리는 단순히 이곳에 태어났고 여기에 이사하고 직장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아내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지역사회에 불려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 포로로 불렀던 것과 꼭 같은 과업 곧 그 도시의 살롬- 평화, 번성, 안녕, 온전함, 충만함, 화해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불렀다는 것이다.

그래함 코울(Graham A. Cole, 2009: 157-185.)은 그의 책 “God the Peace Maker:

How atonement brings shalom”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살롬을 가져왔으며 이것을 개인을 위한 하나님과의 평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평화, 우주를 위한 평화의 세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평화(Peace of God for the individual)는 그리스도의 죽음인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사함과 정결함, 칭의, 대속, 양자됨, 화목에서 온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는데 있어서 바울이 그 중요성과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예수님의 속죄가 가져온 큰 유익은 죄 사함이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것과 죄 사함은 동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에베소서 1:7). 속죄와 죄 사함과 정결함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 1서 1: 7-9). 속죄에서 오는 중요한 유익은 칭의(justification)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로마서 5: 8-9). 예수님께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신 구속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가복음 10:45).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유익을 주셨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라디아서 4:4-6).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2장 까지 죄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의 반목(estrangement)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reconciliation)를 다루고 있다. 칼빈(Calvin)은 화해를 우리 죄의 대속제물(expiation)과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화목제물(propitiation)에서 오는 인간과 하나님간의 평화라고 기술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로마서 5:1). 이 구절에서 영어 peace의 통상적 의미는 갈등의 부재(absence of conflict)이지만 그리스어 에레네(εἰρήνη, eirēnē)는 70인 역에서 히브리어 샬롬(שלום, shalom)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축복과 객관적 관계변화를 훨씬 잘 나타내는 더욱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개개인의 화해와 연결될 뿐 아니라 택한 백성들과도 연결되어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에베소서 5: 25).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사도행전 20:28).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에베소서 2: 12-14).

그리스도의 속죄가 미친 화해의 영향의 범위는 우주적이며 너무나 놀랍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로새서 1: 18-20).

속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죄 사함을 받으며 정결케 되며 칭의를 받으며 구속되고 아들이 되며 화해를 이룬다(Cole, 2009). 속죄로부터 평화라는 배당금(peace dividend)을 받는다.

린시콕과 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산물로서 샬롬커뮤니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는 보다 공동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후자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샬롬의 개인적 면이 보다 강조되었다.

2010년 10월 16-25 까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열린 3차 로잔 회의 주제인 “세상과 화해하는 그리스도안의 하나님”(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고린도후서 5:19)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대응이다

(<http://www.lausanne.org/cape-town-2010/faq-programme.html>).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산물인 살롬커뮤니티 건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경의 살롬에 대한 증거는 분명하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이사야 9: 6; 히브리서 7:2). 이 땅의 평화의 원천이다(누가복음 2:14). 예수님께서 부활 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살롬을 전하셨다(요한복음 20:19, 21, 26).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화락이다(로마서 14:17). 이러한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며 서신서 곳곳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뒤따라온다(로마서1:7, 고린도전서 1:3, 고린도후서 1:2, 갈라디아서 1:3, 에베소서 1:2, 빌립보서 1:2, 골로새서 1:2, 데살로니가전서 1:1, 데살로니가후서 1:2, 디모데전서 1:2, 디모데후서 1:2, 디도서 1:4, 빌레몬서 1:3, 베드로전서 1:2, 베드로후서 1:2 요한 2서 1:3)¹²). 부활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전한 은혜와 평강인 살롬의 복음이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여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짐을 짐을 알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살롬은 우리의 인식과 상상을 초월한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가족에, 교회에, 직장에, 지역사회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등의 삶의 영역에 임하여 침투할 때 살롬이 만들어 지고 살롬 커뮤니티가 형성되어간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눈물이나 통곡이나 아픔이 없는 완벽한 성경적 건강도시 곧 살롬커뮤니티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요한계시록 21:1-7).

(3)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의 개념의 이해와 비교

건강도시의 개념은 역사적 산물이다. 단순히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검증을 받으면서 탄생했으며 글로벌한 개념이다. 건강도시의 아이디어는 1984년 토론토에서 「건강의료를 넘어(Beyond Health Care)」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그 아이디어가 싹텄고 당시 WHO와 관리로서 참여한 Kickbusch에 의해서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WHO 유럽지역에서 건강도시 사업이 1987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1기부터 5기까지 진행되고 있다¹³).

12) 은혜와 평강에 공흠을 넣어 은혜와 공흠과 평강이 네게 있을 찌어다(디모데전서 1:2, 디모데후서 1:2)의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다서는 공흠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유다서 1:2). 야고보서와 요한 일서에는 문안인사가 보이지 않고 히브리서에는 뒷부분에서 평강의 하나님... 있을찌어다(13:20,21). 은혜가 있을 찌어다(13:24)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그 이후 미국과 캐나다가 속한 북미와 남미의 아메리카, 지중해 지역, 아프리카, 동남아,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서태평양 지역 등 WHO 지구촌 전역에서 건강도시사업이 진행되어왔다. 우리나라는 9개국 120개 회원도시 중 건강도시에 가입한 도시는 59개 도시에 이른다.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전인건강과 성경적 전인건강 개념이 핵심요소다. 간단히 건강도시는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로, 살롬커뮤니티 곧 성경적 건강도시는 성경적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전자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시민들이지만 후자의 주체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다.

건강도시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하며 도시민이 삶의 모든 기능수행과 최대한의 잠재력 개발에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이다¹⁴⁾. 원래의 개념을 다음 <표2>와 같이 몇 가지 요소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조무성, 2008).

<표2> 건강도시 개념 요소의 분석

환경건강과 사회건강	사회건강과 시설환경(생활조건)	개인건강 (마음건강 몸건강)
is continually creating and improving thos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expanding those community resources which enable people to mutually support each other	in performing all the functions of life and in developing to their maximum potential.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조성 개선	상부상조하게 하는 지역사회자원의 확장	구성원의 삶의 모든 기능과 모든 잠재력개발

13) 2009-2013년 사이 5기 사업은 돌봄과 지속적 환경의 조성(Creating caring and supportive environments), 건강한 삶의 양식(healthy life), 건강환 도시환경과 설계(healthy urban environment)에 초점을 두고 있다.

14) “A healthy city is one that is continually creating and improving thos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expanding those community resources which enable people to mutually support each other in performing all the functions of life and in developing to their maximum potential(http://www.euro.who.int/healthy-cities/introducing/20050202_1),” 건강도시의 영어표현은 “health city”가 아니고 “healthy city”인데 우리말로는 건강한 도시라 하지 않고 건강도시로 번역한다. 후자가 전자보다 용어로서 압축성과 건강도시가 과정이라는 점의 뉘앙스를 준다. 김공현(2008: 140)은 풀어서 ‘건강에 이로운 도시’로 번역하기도 한다.

건강도시는 시민의 전인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도시이다. 전인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도시는 시민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 웰빙(wellbeing)의 관점에서 보면 시민의 마음과 몸 및 사회와 환경이 잘 있도록 하는 도시이다. 전인치유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시이다.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건강도시는 도시민의 전인건강문제해결에 노력하는 도시이다. 삶의 질과 자원의 관점에서는 건강도시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해결의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이다. 궁극적 목표의 관점에서 건강도시는 도시민의 행복, 전인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이다. 행정의 관점에서 건강도시는 행정에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도시이다. 정책의 관점에서 건강도시는 모든 정책에 건강을 반영하는 것이다. Kickbusch(2008)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건강(Health in All Policies)을 주창해 왔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건강도시는 산물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구상에 완전한 건강도시는 없고 연속선상의 과정에 있고 건강도시의 수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높은 수준에 도달 되었다고 가만히 머물러 있고 노력 안하면 건강도시가 아니다. 문제가 많은 수준 낮은 도시도 전인건강을 위해 힘쓰면 건강도시가 될 수 있다. 전인건강의 관점에서 건강도시는 <표3>의 왼쪽 부분과 같이 특질을 갖는다(Hancock 1993: 9, 조무성, 2008).

하나님이 의도한 세계는 살롬공동체이다.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살롬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져야 할 살롬공동체를 의미한다. 겨자씨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 도래되어 미래를 향해 완성되는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마태복음 13:31-33 양용의, 2006: 152).

이사야 65장을 예수님이 채립해서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지만 현재 불완전하게나마 성령의 능력으로 맛볼 수 있는 살롬이 숨 쉬는 공동체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김서택 2008: 495). 린시컴(Linthicum, 2006)은 이사야 65장으로부터 살롬커뮤니티의 특징을 <표3>의 중간 부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표3>의 우측부분의 전인건강의 차원에서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의 특질을 비교하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곧 마음건강, 몸건강, 사회건강, 환경건강의 차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3〉 건강도시와 이사야서 살림공동체의 특질 비교

건강도시의 특질	이사야서의 살림공동체의 특질	전인건강 차원
주거환경을 포함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모든 사람을 위한 남부럽지 않고 위생적이며 안전하며 여유 있는 주거(65:21-22)	환경건강
현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체제	적절한 수입과 삶의 의미와 초점을 제공하는 직업(65:21-22)	환경건강
강한 상부상조적이며 비착취적인 지역사회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삶(65:19,23), 안정되고 안전하며 상호지지적인 이웃(65:25)	사회건강
시민의 삶과 건강 및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시민이 높은 수준의 참여와 통제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삶(65:19,23)	사회건강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욕구(음식·물, 주거, 소득, 안전과 직업)의 충족노력	부가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 사람들 간에 소득과 부와 직위와 신분에 있어서 큰 격차가 없는 것(21-23)	사회건강, 몸건강
다양하고 폭넓은 접촉의 기회와 교류 및 의사소통을 통해 넓고 다양한 경험과 자원의 접근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삶(65:19,23)	사회건강
다양하고 활력 있으며 혁신적인 시의 경제	부가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 사람들 간에 소득과 부와 직위와 신분에 있어서 큰 격차가 없는 것(21-23)	사회건강
도시의 과거와 거주자의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과 함께 다른 집단과 개인들의 연결을 격려	모든 사람을 위한 남부럽지 않고 위생적이며 안전하고 여유 있는 주거(65:21-22)	사회건강
이전의 특성과 양립하고 고양할 수 있는 형태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국민건강 및 질병치료 서비스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장수에 기여하고 유아사망을 종식시키는 보건의료(65:20)	몸건강
고도의 건강상태(높은 수준의 적극적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건강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환경(65:20)	몸건강

출처: 조무성, 건강도시와 살림커뮤니티의 관계(364쪽)

기술한 바와 같이 포리스터(Forrester)는 공적 신학을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성찬을 시행하는 고유한 기능이전에 도시의 복지(welfare)를 추구하는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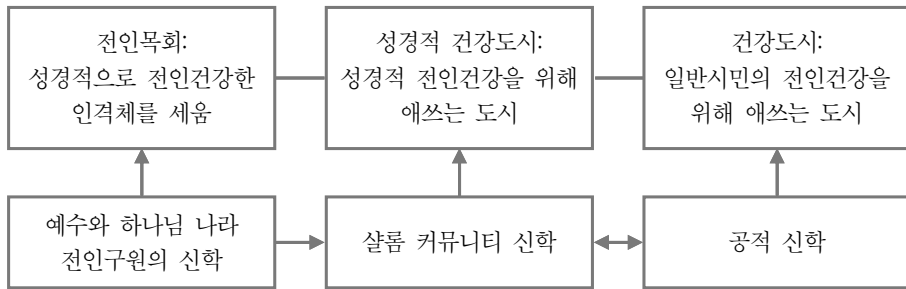
학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적 신학은 건강도시를 추구한다. 그러나 건강도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한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되었기에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다른 것의 관계회복을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살롬은 이룩되지 않는다.

성경적 건강도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조무성, 2008)¹⁵⁾. 건강도시는 성경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의 자원을 통하여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 도시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질을 높이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의 질이다. 도시 속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영적 고통이 치유되고 영적 건강이 회복되고 강화된다. 형식적인 예배와 구원의 감각이 없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체질화되고 은혜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영적 건강이 회복되고 강화된다. 이것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다. 도시속의 교회와구성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질을 높임으로 사회적 고통이 치유되고 사회적 건강이 회복되고 강화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의 전인적 고통을 감싸주고 치유함으로 사회적 건강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내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쉬고 관광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이러한 자기사랑의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스트레스 속에 시달리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적 건강도시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를 사랑하는 도시이다. 성경적 건강도시는 곧 참사랑을 실현하는 도시이다. 그러나 완벽한 성경적 건강도시는 이 땅에는 없고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실체를 맞볼 수 없다. 그러한 도시는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개되는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이다(요한계시록 21:

15)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실천한 교회라면 실천의 충성 정도에 비례해서 그 교회는 성경적 건강도시를 위해서 애썼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곳에서(*hic et nunc*)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타 도시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춘천시, 포항시 등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나름대로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 성경적 건강도시를 위해 애를 썼다고 볼 수 있다.

1-22: 5)16).

전인목회가 성경적으로 전인건강한 인격체를 세우는 것이라면 성경적 건강도시는 성경적 전인건강 곧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힘쓰는 도시이며 일반적 의미의 건강도시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접촉하는 공통분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인목회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와 전인구원의 신학과 언급한 각각의 도시는 살롬커뮤니티 신학과 공적 신학을 그 배경으로 가지며 다음의 그림으로 정리된다.



[그림1] 성경적 전인건강을 통한 전인목회와 성경적 건강도시의 논리적 연결고리

IV. 하나님 나라와 살롬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실천적 전략

건강도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 전략이다.

1.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의 차이점과 공통점의 인식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산물로서 살롬커뮤니티 형성을 열망하는 신앙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비신앙인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그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16) 새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보는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보거나 백성의 공동체로 보거나 이 양자를 같이 보는 경우의 입장이 있다(김서택 2005: 853-4; 손영목 2007: 281, 유동근 2007: 629; 최세창, 2005: 427).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공통점을 모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큰 장애를 갖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철저할 것이 요구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 인격체를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보주주의자는 전자에, 자유주의자는 후자에 초점을 둔다. 로잔언약에서 제시한 사회적 책임은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하고 후자에 초점을 둔 것이고 공적 신학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신학의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후자에 초점을 둔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는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 어느 하나도 결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 갈등을 제공하는 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와 살롬커뮤니티의 신학의 관점은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보며 개인, 가정, 지역사회, 도시, 지구촌, 우주를 향해 시야를 넓혀 간다.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체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속한 도시의 구성원들의 마음과 몸의 건강 및 인간관계의 조화로써 사회건강과 그 시설 및 자연의 환경의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의 현장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지역사회를 포함한 광의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목회는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팀사역의 정신으로 온전한 인격체가 되도록 돌보고 키우는데 초점을 두는 전인목회가 합당하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 산물인 살롬과 살롬커뮤니티를 생각할 때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의미가 훨씬 분명해 진다. 그러나 살롬이나 살롬커뮤니티의 개념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통용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건강도시의 개념은 공적신학에서 말하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적합한 용어이다. 광의의 건강도시의 개념은 성경적 건강도시와 비성경적 건강도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경적 건강도시는 예수님의 구속이 전제가 된 성경적 전인건강인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을 위해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애쓰는 도시이다.

비성경적 건강 도시는 시민의 전인건강 곧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 일반시민에게 다가갈 때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표현의 사용은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용어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이 아니다. 순결하면서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요구되는 현실이다¹⁷⁾. 예수님은 제자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에 비유하면서 순결과 지혜를 강조하셨다(마태복음 10:36). 이리는 악하고 힘센 사람들이다. 악하고 힘센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착하고 힘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들을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착하고 힘센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다니엘 2:20, 야고보서 5:1).

이렇게 보면 건강도시라는 용어는 성경적 관점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의 친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표현이다. 시민들에게 이웃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나 거부반응을 심어주지 않고 쉽게 다가가는 용어를 찾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며 우리 할 일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에베소서 5:15-16).

2. 건강도시와 살림 공동체의 공통분모에 주력

도시는 건강도시와 비건강도시로 나누고 건강도시는 다시 성경적 건강도시와 비성경적 건강도시로 나누어진다. 즉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와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지 않는 도시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건강도시의 WHO 가입의 수의 증가와 위상의 발전은 놀랍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가입 현황을 보면 한국(59), 호주(8), 캄보디아(1), 중국(24), 일본(14), 말레이시아(1), 몽골(1), 필리핀(13), 베트남(1)이다(<http://www.alliance-healthycities.com>). 우리나라는 2004년에 서울특별시 창원시 원주시 부산지구에서 시작되어 2008년에는 폭발적인 증가로 전국적으로 21개 시군구가 가입을 했다. 매년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는 도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16)와 기초

17) 성시화 운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다.

자치단체(230)를 합쳐 모두 246곳인데 이 중에 59곳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있다는 것은 전체 자치단체 중 4분 1에 육박하는 숫자이며 계속 늘어날 전망에 있다. 우리나라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의 가입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우리나라의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2010	2011
서울특별시 창원시 원주시 부산진구	제주도 강남구 성동구 도봉구 남해군 금산군 연기군	부산광역시 진주시 전주시 서산시 서울 동작구 서울 광진구 서울 성북구	춘천시 화성시 순천시 울산북구 장항동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구 서울 구로구 광주 동구	아산시 안동시 동해시 광명시 무주군 부여군 양구군 양평군 완도군 진천군 의왕시 제천시 속초시 시흥시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서울 송파구 서울 영등포구 광주 남구 광주 서구 태백시	하동군 양산시 용산구 장수군 천안시	구미시 중량구 관악구 동대문구 강서구	인천 연수구
4개	7개	7개	9개	22개	5	4	1

WHO 건강도시의 가입은 긍정적으로 보면 뜨거운 열의라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실이 부실하다는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 있다. 건강도시사업의 사례로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원주의 담배소비세를 건강도시사업의 활용은 WHO도 인정한 좋은 사례에 속한다(조무성, 2008).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강남구 주최로 서태평양지역 제 4차 세계 건강도시연맹(Alliances for Healthy Cities)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강남구가 2년간 의장도시가 되었고 원주시는 운영위원회의 의장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Gangnamgu, 2010).

우리나라의 도시 중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건강도시 수준이 가입한 도시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성남시는 아직 가입이 안 되었기 거기에 속한 분당구를 위에 가입한 어느 도시보다 건강도시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도시는 회원도시 간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을 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건강증진재단에 홈페이지를 각 도시의 사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http://khealth.or.kr>).

<표4>에서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59개 도시를 열거한 이유는 각 도시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건강도시 성경적 건강도시 형성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위의 도시만 하더라도 교회들이 없는 곳은 없다. 그 도시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그 도시의 성경적 건강도시의 수준이 정해진다. 자치단체와 시민들 중 기독교인들이나 교회가 성경적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며 건강도시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할 때 그 도시는 성경적 건강도시가 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기독교인들이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비성경적 건강도시가 된다. 성경적 건강도시의 수준이나 비성경적 건강도시의 수준은 그것을 측정하는 적절한 지표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생각해야 한다.

도시는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를 가지고 이해관계에 예민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다른 종교적 세계관을 갖거나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하다. 도시에는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가치가 있다. 기독교인들이 비신앙인들이 원하는 것 가운데 함께 공유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살피는 것은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인 성경적 건강도시의 공통분모를 찾는 데 중요하며 지혜로운 것이다. 복음을 맡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것을 당부하셨기 때문이다(마태복음 10:16). 고통 받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의 질과 웰빙을 향상하는 것은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는 공통분모이다. 이러한 공

통분모의 확장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원천이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며 그들의 웰빙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마태복음 5:16). 성경적 건강도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영적 건강을 촉진하는 생활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 건강을 촉진하는 생활도 중요하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건강과 환경적 건강을 촉진시키는 생활을 통해 비기독교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가”라는 감동을 준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를 심기 때문에 복음전도를 통하여 영적건강을 촉진하는 것이 된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배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이 때문에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사랑도 문제가 있지만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도 문제가 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그 도시의 전인적 고통 곧 마음, 관계, 사회, 환경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복음전도의 기회가 오도록 하는 것이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지혜로울 것이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그곳의 교육구와 협조해서 홈리스 자녀를 위한 캠프를 하는 것이라든지 분당 우리교회에서 성남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성남시학원연합회와 협조해서 과외를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양극화에 기인한 이웃의 전인적 고통에 일차적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¹⁸⁾. 만약에 이들의 전인적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만 전한다고하면 그들과의 복음의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위치한 애너하임 또는 분당우리교회가 위치한 성남시에 있는 전체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의 고통을 치유한다는 살롬커뮤니티의 거시적 비전을 품고 이 일을 행할 때 도시의 고통을 치유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만약 위의 표에 제시된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근거하여 고통 받는 이웃의 전인건강을 위해 힘쓰는

18) 두 사례는 되값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하는 좋은 사례로 판단된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미국 100대 교회에 속하는 대형교회인데 가장 어려운 계층의 자녀를 위해 여름캠프를 해오고 있고 자녀들을 멘토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를 위한 좋은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올해 담당목회자와 총무와 인터뷰를 했다. 우리교회도 대형교회로 교육의 양극화에서 고통 하는 아주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때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

건강도시운동을 조용히 펼친다면 이것이 요즘처럼 불신자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반기독교 세력이 확산된 시점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첩경인 것처럼 보인다. 공적신학의 관점에서 도시에 있는 일반인들이 갖는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사회의 고통, 환경의 고통의 관심과 치유가 일반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마태복음 5:16).

3. 전인목회를 통한 비전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

어떤 도시에 교회가 설립되고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그곳에서 출생, 이사, 취직 등 단순히 환경적 요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비전과 사명이 어떻게 기독교인들 속에 공유되며 형성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지식과 이것의 적용을 위한 학자의 연구노력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강단에서 전인목회가 이루어질 때 소기의 성과가 일어날 수 있다. 바울이 강조점을 두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게 초점을 둔 복음 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단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단에서 외쳐져야 한다. 예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외쳐지고 그 나라의 산물로서 도시의 살롬커뮤니티 형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될 때 교인들이 교회에 속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도시 내에 큰 교회와 중소교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지 않으면 그 도시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실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가? 교인의 수평이동의 경향 때문에 특히 작은 교회는 큰 교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 큰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작은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하거나 힘을 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없는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살롬커뮤니티의 형성은 현실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섬긴다는 것은 현실의 논리에는 맞지 않으나 성경의 논리는 맞는다.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인데 종의 형태로 오셔서 제자들을 섬김으로 키웠기 때문이다(빌립보서 2:5-7; 요안복음 13; 5; 마가복음 10:45).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겨 네트워크를 이루는 예를 생각해보자. 큰 교회가 위치한 도시에 80%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어장에서 사람을 잘 낚는 어부가 되도록 작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도시의 고통을 치유하는 교회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살롬 커뮤니티 형성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 간에 나타나는 살롬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은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서로 간에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도시의 고통을 진단하고 치유를 위한 자원을 배분 하는 기초가 된다. 이것은 예컨대 성남시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의 성격이나 양에 따라 도시의 고통 치유를 위한 자원을 배분하고 일을 분담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4.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 G 프로젝트와 고통 주는 사람을 통제하는 J 프로젝트

여기서 말하는 G 프로젝트는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의 선행사업을 의미한다. J 프로젝트는 악한 사람을 통제하는 예리고(Jericho)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G 프로젝트의 경우 반대급부를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일차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든 대형교회의 홈리스 자녀 캠프와 취약계층의 과외지원은 이러한 정신에 맞기 때문에 돋보이는 좋은 사례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을 사용할 때 투자효과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다. 같은 재원을 어디에 우선해서 쓸가에 대해서 준만큼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현실 논리이다. 성경은 이러한 논리를 뛰어 넘고 있다. 현실에는 되값음이 없지만 의인의 부활 때 되값음이 있다고 한(누가복음 14:13-14). 그러나 되값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함으로 보물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은 투자효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닌 가 싶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 준 것이 그로부터 무슨 반대급부를 기대한 것이 전혀 아니다. 여행 계획의 일정이 딱 잡힌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및 물질을 강도만난 사람에게 투자한 것은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투자 뺑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설명한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지나가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이웃으로 결코 이야기 하지 않는다(누가복음 10: 31-37).

우리나라에 한해에 암으로 7만 명이 죽고 18만 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생기고 70만 명이 암을 앓고 있고 딸린 가족을 고려하면 2백만- 3백만이 암으로 고통하고 있다. 특히 가난한 암환자의 경우는 치료할 길이 막막하며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

문에 경제적 고통과 자녀교육 등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 만약 각 도시에서 암환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고 교인들 뿐 아니라 가난한 암환자인 지역주민들도 그곳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된 하늘의 상급이 약속된 것이다. 암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자본주의 논리로 투자효과를 따져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딱한 현실이다. 큰 교회일수록 가장 낮은 사람을 섬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면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긍정적 반응을 가져와 가로막힌 전도의 문은 점차로 열려 갈 것이다.

고통 받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악하고 힘센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린시콸(2006: 95-110)은 시카고에서 낙후되어 가는 지역에 있는 어떤 은행이 3년 전부터 집을 구입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대부분 거절하면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교회들을 몰아내고 고급아파트를 지음으로 개발업자와 은행에 큰 이익을 가져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지역의 교회들과 관련 주민들을 통한 수평적 권력형성으로 막은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즉 현지역의 교수, 기도, 지역 기독인들의 선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봉사, 시의회 방문, 커뮤니티 개발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어서 교회들과 관련 주민들이 은행의 예금을 인출하겠다는 강력한 행동방침으로 은행의 횡포를 굴복시켰다는 것이다. 이 사회의 구조악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악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교회와 기독인들이 착하고 힘센 사람들로서 역할을 다하고 악하고 힘센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압도하기 위한 J 프로젝트인 여리고 프로젝트도 G 프로젝트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5. 하나님 나라 관점의 전인목회를 통한 살롬 일꾼 키우기

제자훈련은 한국교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며 그러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훈련인 것도 사실이다¹⁹⁾.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서 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깊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우리사회에

19) 옥한흠 목사는 이 부분에 목회인생을 걸고 한국교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서 교회가 처한 위상과 관련한 위기 속에서 성경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있는 곳 즉 가정 직장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키도록 제대로 가르쳤는가의 반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의 반성은 현 위기를 타개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강단에서 예수님의 복음만이 가르쳤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았고 일부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접목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미흡하다.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나 도시를 품고 그 도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자훈련 모델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교회가 속한 도시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총체적으로 진단 하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도시의 살롬을 회복하는 관점의 제자훈련에 대한 체계적 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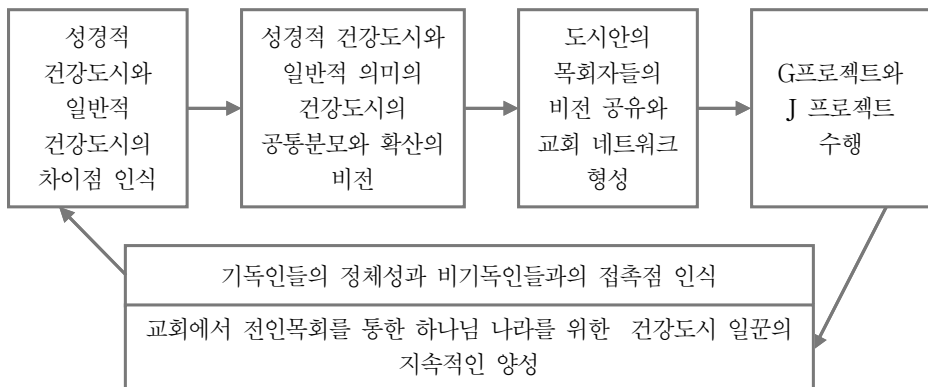
제자훈련은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일에 열심인 사는 사람을 키우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어진 위치에서 제자로서의 섬김의 삶을 사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훈련들이 개인적 차원이나 개별교회의 차원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교회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도시의 고통의 문제를 함께 풀어 성경적 건강도시를 이루어 가야 하겠다는 의식을 일깨우기에는 미흡하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결여된 채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체로서 제자를 키우기 위해 성경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가 그 사회의 다른 교회들과 함께 도시의 고통을 치유하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배우는 교인들에게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인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많이 나와야 됴은 물론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전인목회는 심리학의 관점과 연결되거나 내적 치유에 초점을 둔 전인목회의 개념과 의미내용이 구별된다. 전인목회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심리학의 관점에서 생애의 전 과정과 연결해서 사용되었고 내적 치유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이기춘, 1987)²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내적치유와 함께 외적 치유도 다룬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창녀, 장애인 등을 북돋워 주었으며 자연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사용하셨고 피조물도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로마서 8:19-21).

20) 주 5) 참조. 국제전인목회연구원에서 전인목회라는 용어를 쓰면서 내적치유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왜곡된 관계들로부터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정상적 관계들의 회복과정이 하나님의 통치라면 그 산물이 살롬인 것이다. 즉 살롬 곧 성경적 전인건강은 개인과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로부터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의 산물인 영적 건강, 인간자신의 이미지와 육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계로부터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의 산물인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인간과 인간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정상적 관계로 회복한 결과로서 사회건강, 인간과 자연의 비정상적인 관계로부터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의 산물인 환경건강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롬을 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전인목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성경적 전인건강을 개인, 가정, 교회, 도시, 국가, 지구촌을 향해 심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전인목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성경적 건강도시의 일꾼을 키우는 것이 일반사람들과 호흡하는 건강도시의 일꾼을 키우는 지름길이며 이것을 통해 한국교회가 21세기 하나님 나라의 사명 특히 선교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산물로서 이 땅에 살롬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성경적 건강도시인 살롬커뮤니티와 일반적의 의미의 건강도시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확장하며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도시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돕는 Good Samaritan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는 사람을 통제하는 여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갖고 현실에 살롬커뮤니티를 실현하는 사람을 계속 키워나갈 때 건강도시 특히 성경적 건강도시의 실현은 가시화 될 수 있다. 즉 다음의 단계적 전략으로 도식화된다.



[그림2] 성경적 건강도시의 단계적 발전전략

V. 결론: 요약과 과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인목회가 무엇이고 신학적 밑받침은 무엇이며 도시안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산물인 샬롬커뮤니티로서 성경적 건강도시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 체계적으로 답해 보았다.

한국교회는 교인수의 지속적 감소, 한기총 사태의 부패, 부정적 이미지의 양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한국교회 특히 보수진영의 교회가 바울처럼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균형 있는 목회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설교와 가르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치 독수리의 한 쪽 날개만 있어 제대로 날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목회스타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기서 제시하는 전인목회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관계적 존재로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도록 구성원을 돌보며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적 관점과 내적 치유의 관점의 전인목회와 구별된다. 전인목회의 특징은 예수와 하나님나라의 초점, 통전적 구원, 전인예배, 전인치유, 전인교육, 전인사랑을 포함한다. 전인목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산물로 샬롬 커뮤니티를 추구한다. 샬롬은 성경적 전인건강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전제로 하는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을 포함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전인목회를 가능케 하는 신학적인 뒷받침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공적신학과 린스쿰과 코울에게서 보여주는 샬롬 커뮤니티 신학이다. 전인건강과 성경적 전인건강은 공적신학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성경적 건강도시는 샬롬커뮤니티 신학을 통해서 그 본질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담아 낼 수 있다.

건강도시는 시정부와 시민의 전인건강을 위해 힘쓰는 도시이고 성경적 건강도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건강을 위해 힘쓰는 도시이다. 우리나라는 WHO 건강도시 연맹 9 개국 122 회원도시 중 59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이처럼 가입된 건강도시의 수는 우리나라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4 분의 1에 육박하는 수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건강도시와 성경적 건강도시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샬롬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한 전략의 첫 단추가 된다. 나아가 건강도시와 샬롬커뮤

니티의 공통분모에 초점을 두어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전인건강을 위해 시민들을 섬기며 목회자들 간에 전인목회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도시 내의 교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 G 프로젝트 즉 Good Samaritan 프로젝트와 고통 주는 사람을 통제하는 J 프로젝트 즉 Jericho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전인목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살롬 일꾼을 지속적으로 키운다.

하나님 나라와 살롬커뮤니티의 신학의 관점을 실현하는 데는 학제적 접근이 요구되며 평생 신학을 전공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심도 있는 신학적 기초를 놓아 준다면 다른 분야의 전공과 연결된 학제적인 학문성과를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건강도시 특히 성경적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모범사례를 찾고 이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남은 과제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공현 (2008). “건강에 이로운 도시프로젝트의 골격”. 『건강·안전도시 워크숍 자료집』. 서울특별시 건강증진담당관.
- 김경재 (2006). “공공신학에 관한 한국개신교의 두 흐름: 보수적 기독교의 사유화 신앙과 진보적 기독교의 참여의 신앙”. 『공공철학시리즈』. 16. 417-447, 동경: 동경대학 출판회.
- 김서택 (2008).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 _____ (2005). 『역사의 대드라마 요한계시록』. 한국성서유니온 선교회.
- 김정환, (1998). 교육이란 무엇인가: 전인교육의 이념과 방법. 한국교육연구소 주최 2회 교육사상 강좌 강의녹취록.
- 김홍전 (2004).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 서울: 성약
- _____ (2005).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 서울: 성약
- _____ (2008). 『주기도문 강해』. 서울: 성약.
-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등 (2011). 건강도시 역량 강화 워크샵. 우수 사례. 79-200. 269-316.
- 도널드 클레이빌 (2010).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서울: 복있는 사람.
- 란다콕 (2006).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여덟 가지 영역』. 예수전도단.
- 리처드 니이버 (2007).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 박철수(2009). 『하나님 나라』. 서울: 대장간.
- 손영목 (2007).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서울: 쿠파.
- 심상범(2005). “신약신학과 총체적 복음 사역-하나님나라 제자도를 중심으로”. 『신학지남』 가을호(통권284). 16-17.
- 양용의 (2007).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서유니온 선교회.
- 유동근 (2007). 『요한계시록 강해』, IMC 국제선교신학원 출판부.
- 월터스토프 (2007).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서울: IVP.
- 이기춘 (1987). “에릭슨의 생애주기 이론과 전인목회(I)”. 『신학과 세계』. 가을호
- 이승구 (2008). “공적 신학에 대한 개혁파적 접근”. 미래목회포럼 신학심포지움 자료집. 44-59.
- _____ (2010). 『광장의 신학: 성, 사형제, 정치문화, 이주자, 안락사, 생명』.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 이형기 (2008). “공적 신학의 지평: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의 공적 책임을 중심으로”. 미래목회포럼 신학심포지움 자료집, 10-43.
- 조무성 (1997). “의료 전문화와 전인건강문화- 성경적 세계관의 적용”. 『신앙과 학문』. 52-55.
- _____ (2009). “건강도시와 삶터로서 교회의 역할: 영등포 도림교회의 복지사례”. 4차 전인건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_____ (2008). 건강도시와 살림커뮤니티의 관계: 생활행정학과 신학의 만남. 『신앙과 학문』 제 13권 3호.
- 존 스토트 (1982). 『현대의 기독교 선교,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 _____ (2006).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 최낙재 (2008).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I)』. 서울: 성약.
- _____ (2009).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II)』. 서울: 성약
- _____ (2010).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I)』. 서울: 성약
- _____ (2011).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II)』. 서울: 성약
- 최세창 (2005). 『요한계시록』, 427, 서울: 글벗사.
- 최홍석 (1991). “인간의 구조적 본성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II): 단일론과 관련하여”. 『신학지남』. 228: 98-99.
-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2009). 『복음주의 목회학』. 서울: CLC.
- 홍창표 (2004). 『하나님 나라와 비유』. 합동신학 대원대 출판부.
- Coburn, Jason (2009). *Toward Healthy Cities. People, Places, the Politics of Urban Planning and Power*. MA, Cambridge: MIT.
- Cole, Graham A. (2009). *God the Peace Maker: How Atonement Brings Shalom*. 157-185. IVP Academic.
- Dackson, Wendy (2006). “Archibishop William Temple and Public Theology in a Post Christian Context.” *Journal of Anglican Studies*, 4(2): 240-242.
- Dodd, C.H. (1935). *The Parable of the Kingdom*. London:Nisbet & Co.
- Forrester, Ducan B. (2004). *The Scope of Public Theology*. *Studies in Christian Ethics*, 17(5). 6-7.
- Hainworth, Deirdere and Scott R. Paeth. (eds) (2010).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 Essays in Honor of Stackhous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Hancock, Trevor (1993). *The Evolution, Impact, and Significance of Healthy Cities/Healthy Communities*.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Spring;14(1):5-18.
- _____ (1997). *Healthy Cities: Present, Past, and Future*. *National Civic Review*, Volume 86. Issue 1. pp. 11-21.
- Gangnam-gu (2010). *The 4th Global Conference Alliance for Healthy Cities: Abstract Book*.
- Hookema, Anthony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dermans Publishing Company.
- Kickbusch, Ilona (2008). *Adelaide revisited: from healthy public policy to Health in All Policies*.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3(1). 1-4.
- Leew, Evelyne de. (2009). *Evidence for Healthy Cities: Reflections on Practice, Method and Theory*.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4 (suppl 1): i19-i36.
- Linthicum, Robert C. (2006). *Building a People of Power: Equipping Churches to Transform Their Communities*. 4-22, Seattle, WA. Authentic and World Vision.
- Longest, Beaufort B. (1998). *Health Policy Making in Unites States*. Chicago, Ill: Health Administration Press.
- Phillips, David R. & Yola, Verhasselt (1994),. “Introduction,” In David R. Phillips & Verhasselt Yola, ed. *Health and Development*, N. Y.: Routledge.

- Sheinfeld-Gorin, Sherri and Joan Arnold (2006), *Health Promotion in Practice*, Sanfrancisco, Ca: Jossey-Bass.
- Sider et al. (2002). *Churches that Make a Difference*, Grandrapids, MI: BarberBooks.
- Stackhouse, Max L (1997). Public Theology and Ethical Judgement. *Theology Today*. 54(2). 165-167.
- Voss, Gerhardus(1975).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Banner of Truth.
- Ziegler, Philip (2002), God and Some Recent Public Theolo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4(2). 146-147.

<http://www.alliance-healthycities.com>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51652>

<http://www.concernedchristians.50megs.com/page3.htm>

<http://www.eauk.org/>

http://www.euro.who.int/healthy-cities/introducing/20050202_1

<http://khealth.or.kr>

<http://www.kosis.kr>

<http://www.lausanne.org/cape-town-2010/faq-programme.html>

http://en.wikipedia.org/wiki/Mission_

<http://www.worldevangelicals.org/>

ABSTRACT

Holistic Ministry and Healthy City : The Perspective of Kingdom of God

Moo-Ssung Cho(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theological background of holistic ministry and on the strategies for biblically healthy cities as shalom communities. Korean Churches, especially evangelical churches do not proclaim and teach balanced gospel : the redemption of Jesus Christ and Kingdom of God like Paul(Acts 28: 30-31) because they have neglected the latter. So the leadership style of pastor that can realize the Kingdom of God specifically and relevantly is necessary. In this paper holistic ministry means a care and service of church members in order to become whole person as relational being for the kingdom of God based on the redemption of Jesus Christ. The characteristics of holistic ministry include concentration on Jesus and Kingdom of God, holistic salvation, worship with all whole being, holistic healing, holistic education, and love of neighbor with all heart, and holistic mission. Public theology and shalom community theology are theological background to build shalom community as biblically healthy cities. The strategies to build shalom communities include identification of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healthy cities and shalom communities, focusing on common grounds of both of them, sharing vision with pastors in city and networking, performing good samaritan project and Jericho project, and education of shalom maker for the kingdom of God.

Key Words: shalom communities, healthy city, the kingdom of God, biblically healthy city

